

## 헝그리 정신으로 태어난 “월간양계”



▲ 김영옥 부회장

- 1967 서울대 축산학과 졸
- 1969-72 월간양계 초대 편집장
- 1972-85 퓨리나코리아(지역부장, 농장장, 양계·낙농 PM)
- 1977-93 월간양계 편집위원
- 1985-07 제일사료(주) 부사장, 대표이사, 제일곡산(주) 대표이사 제일사료(주) 대표이사
- 2001-04 한국사료협회 부회장
- 2001-현재 하림그룹 수석부회장

**1969**년 11월에 태어난 월간양계가 이번 호 발간으로 창간 39주년을 맞이하였다. 본고는 월간양계 초대 편집장을 역임했고 지금까지 월간양계에 대해 지속적인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김영옥 하림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나 월간양계지 창간 당시의 현황과 향후 월간양계 및 양계협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헝그리 정신에 태어난 월간양계

김영옥 부회장은 1967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은사인 오봉국 교수(당시 양계협회 전신인 한국가금협회 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양계업계에 입문하였다. 오봉국 교수는 양계잡지를 창간하는 일을 맡겼는데 축산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출판 관련 업무는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창간을 목표로 조직(편집위원 선정), 제호, 경비조달, 편집방향, 잡지등록, 원고수집, 인쇄소 선정 등을 위해 혼자 뛰어다녀야만 했다. 다행히 군 특수부대 소대장(편의공작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책을 발간하고 유

지하는데 필요한 광고협찬이었고, 원고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이끌어 주신 오봉국 박사, 박도현 사장, 최창해 교수, 故오세정 교수, 故강금노 사장, 故김영희 사장, 故이필용 사장 등 협회 이사들로서 적극 도와주었고, 편집위원으로서는 한인규 교수, 임병규 사장, 신정재 사장, 김영환 사장 등이 편집내용 검토, 광고협조 등 전체 잡지의 방향과 편집에 대해 개인 시간을 할애해 가며 도와주었다. 또한 창간 당시 협회의 어려운 살림을 3명의 직원(이재식, 故차묘순, 김영옥)이 꾸려나갔는데, 당시 형 그리 정신으로 협회를 이끌고 월간양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겸손과 겸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광고협찬에 있어서 여러 업체가 도와주었지만 제일사료가 가장 큰 후원업체로 도움을 주었는데, 차후 후원업체였던 제일사료의 사장까지 지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영옥 부회장은 “월간양계가 탄생되고 지금까지 양계업계의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 사료업계에 몸담은 35년

김영옥 수석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제일사료(주) 대표이사로 활동하다가 사료사업 업무 보다 하림그룹 업무에 치중하는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료원료 가격의 상승과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사료자원 확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옥 부회장은 1972년 퓨리나코리아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사료업계에 진출했다. 가축의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인 만큼 생산성을 줄일 경우 업계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라는 신념하에 사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즉 과거에는 육계의 사료요구율이 2.2 전후였던 것이 최근에는 1.7~1.6까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료업계에 근무해 오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 회고하고, 사료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 양계업계 단합과 화합을 보여주길

양계협회는 김영옥 부회장이 살아오면서 입사한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출발할 때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관심과 애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월간양계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회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옥 부회장은 사료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부화장, 육용종계 농장에서 농장장과 양계 PM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양계분야에도 전문가다운 경험을 사료산업 발전에 접목 시킬 수 있게 되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양계협회의 발전 방안을 묻자 “과거에는 종계, 산란계와 육계가 서로 반목 없이 업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재는 업종별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지도자도 바뀌고 구성원도 변화된 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이 유도되는 선순환구조를 가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소비패턴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FTA, 안전성, AI, 질병방역 등이 부각되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합과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월간양계 편집 방향에 대해서 39년 동안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양계산업 발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양계인을 위한 잡지가 되는 방향이길 바란다고 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